

# 수 학 보 고 서

소 속	인문대학/일어일본	
파 견 국 가	일본	
파 견 대 학	lwate university	
파 견 기 간	시작	(2024년/9월)
	종료	(2025년/2월)

준 비 과 정	<b>국제교류프로그램에 지원하기까지 과정</b>
	학교를 선택할 때, 여행으로 자주 가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업 선택의 자유로움과 학교의 네임벨류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를 위해 파견 수기와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를 꼼꼼히 참고하며 결정했습니다.
	<b>파견교 지원 과정</b>
	이와테 대학교는 최소 JLPT N2 이상의 요건이 있었는데 자격증은 이전에 JLPT N1 취득한 것이 있어서 문제 없었습니다. 국제교류처, 네이버 등을 참고하여 서류, 면접을 준비했고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b>파견국가 출국 준비 과정 (비자, 항공권, 준비물 등)</b>
파 견 학 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COE가 필요했는데, 9월 초에 겨우 사본을 받아 비자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실물 COE는 9월 23일에 학교에 도착한 것을 확인 후, 출국 직전에 직접 수령했던 기억이 납니다. 비자는 대행 업체를 통해 신청했으며,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본 도착 후에는 센다이 공항을 거쳐 신칸센을 타고 모리오카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센다이 공항은 이용 가능한 한국항공사가 아시아나밖에 없어서 항공권 비용이 다소 비쌌지만, 신칸센의 경우 이동 거리가 짧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고 덜 피로하게 이동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또한, 센다이 공항에서는 재류카드를 바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입신청을 하면 기숙사로 배송됩니다.
	<b>공항 픽업 &amp; 오리엔테이션</b>
파 견 학 교	픽업의 경우 장소 선택이 가능했는데, 공항 픽업의 경우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역 픽업을 선택했습니다. 이와테 대학교의 교직원분께서 직접 마중 나와 주셨고, 택시를 이용해 편하게 학교까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총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학교 전반에 대한 소개와 교육을 해주는 OT였고, 다른 하나는 수업과 관련된 OT였습니다.

	<b>수업 &amp; 학교 활동</b>
	<p>수업은 유학생 전용 수업과 일반(교양, 전공) 수업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 오기 전에 일본어 레벨 테스트를 보지만, 이는 권장 사항일 뿐 반드시 해당 레벨의 수업을 들을 필요는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보통 유학생들은 유학생 전용 수업을 위주로 듣고, 일반 수업의 경우 최소 한 과목 이상을 수강해야 하는데, 주로 교양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p> <p>저는 복수전공이 경영학이어서 관련 수업을 많이 듣고 싶었지만, 경영학 교수님이 한 분뿐이라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았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한 분이신 만큼 수업의 자유도가 높아 특강이나 세미나 수강의 기회가 있었고, 신문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써보는 출석 과제가 있어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니다.</p> <p>교양 수업이나 전공 수업은 일본인 학생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같은 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수업내용은 흥미롭지만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니다. 특히, 시험이 주관식 위주라 일본어로 작성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졌고 제한된 시간 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니다.</p> <p>국제교류처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를 주관하거나 홍보해주시기 때문에 교류의 기회가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친구 사귀기 기회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스키나 스노보드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데,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강사님께 배울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p>
	<b>기숙사 및 학교 내 편의 시설</b>
	<p>기숙사는 외국인 전용 국제교류회관 1인실을 사용했습니다. 1인실과 4인실 중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4인실의 경우 증축한 건물이라 비교적 새로운 시설입니다. 1인실의 경우 한 달 36000엔만 지불하면 되었습니다. 다만 공용 샤워실이 하루에 100엔이고 겨울에는 매우 춥습니니다. 세탁기의 이용은 200엔입니다.</p>
주변 환경	<b>거주지 주변 지역 정보</b>
	<p>학교 근처에 편의점, 음식점, 돈키호테, 교무슈퍼 등이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 많은 것이 있지는 않기에 어디 놀러간다고하면 모리오카 역이나 오오도리 쪽으로 많이 갔습니니다.</p>
	<b>파견 대학 소재지 지역 정보</b>
	<p>이와테대학교는 일본 이와테현 모리오카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리오카시는 자연이 아름답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려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에 좋지만, 최근에는 예전만큼 눈이 많이 쌓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모리오카 냉면, 자자멘, 완코소바, 김치낫토라멘 등 지역 음식이 유명합니다. 비교적 조용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모리오카역이 가까워 이동이 편리하지만, 여행을 가려면 교통비가 다소 부담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p>
비 용	<b>등록금 (해당 학생만)</b>

	<b>기숙사 비용 (해당 학생만, 학기당)</b>
	1인실 한달 36만엔이고 첫달에 2달치를 냈습니다. 샤워실 100엔(여름 8분, 겨울 10분), 세탁비 200엔입니다.
	<b>추가 비용 (교재비, 보험 등)</b>
	보험비는 학교 측에서 학생 보험을 들 수 있지만 저는 한국에서 보험을 들어서 갔습니다. 교재비 7천엔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교재를 사용하는 과목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과목도 있기 때문에 어떤 수업을 수강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한 권에 1500~2000엔 언저리였습니다.
	<b>생활비</b>
	생활비는 여행 제외하면 한달에 100만원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첫 달과 두 번째 달의 경우 사야할 게 많아서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첫 달의 경우 집세 2달치, 책값 등 내야할 돈이 많습니다.
<b>한달 평균 지출 비용</b>	
학기 초 120~150만원	
학기 중순 100만원	
학기 말 80~90만원	
<b>교환학생 기간 동안 느낀 점</b>	
<p>이와테 대학교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은 제게 많은 성장과 배움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일본어 회화 실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된 것은 물론, 일본어로 된 글을 자주 접하는 환경 덕분에 독해 능력도 크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경험을 통해 실용적인 표현을 더 익히고, 문화적인 뉘앙스까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p> <p>또한, 여러 국적의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점도 뜻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하며 여러 문화를 접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마주하기도 했지만, 이를 극복하며 더욱 유연한 사고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p> <p>한국어 수업을 청강하거나 한국 문화체험 워크숍을 기획하고 부스를 운영하는 활동을 통해, 일본인들이 한국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노래방에서 한국어 노래를 완벽하게 부르는 일본인 친구들을 보고 놀랐고,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p> <p>이번 교환학생 경험을 통해 단순히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감각과 새로운 시각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학업적인 측면을 넘어, 일본에서의 생활을 통해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며 의미 있는 교류를 할 수 있어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p>	

사진 첨부 (최소 5장)



[별첨] 수학보고서



[별첨] 수학보고서

